







# 실천가형의 당정책 신봉자들이 여기에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 응용전, 이것이 당에 대한 충성의 가장 뚜렷한 표시이며 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을 신념으로 간직하는 중요한 계기입니다.』

최근에 벌로 소문나지 않은 일인 문정체현소에서 우리가 그랑듯 큰 감명을 받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하였다. 세련소에서

우리의 사회주의 수호전의 한 진지가,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한 고지가 실천가형의 당정책 신봉자들에 의하여 어떻게 굳건히 지켜지고 어떻게 놀라운 속도로 번보되고 있는가를 우리는 가슴 뜨겁게 목격하였다.

**애착 - 연제련장의 현장에서**

문령체현소 연제련장의 현장에는 두개의 보금자리 있다. 원쪽에는 전기로, 오른쪽에는 용광로.

용광로가 이글거리며 가동될 때 용입처럼 불은 연료이 쏟아지는 황광은 정말 불안하다. 화광이 충전하고 불로 보리님과는 그 장쾌한 모습과 함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은 혁신자로 이를 훌륭한 면모로 열망하고 있다.

비록스화! 바로 그것을 위해

그러나 이제 와서 용광로에 대한 미련이 전기로에 대한 애착을 밀어놓는 없다. 무엇때문인가.

문령체현소로 통제금은 자신

들이 그 수십년 순례로 용광

로보다 아직은 설익은 전기로에

더 정을 물이 고고 있으며 어째서

힘겨워도 전기로를 불안하고 가야

하는 자를 잘 알고 있다.

비록스화! 바로 그것을 위해

시이다.

충정의 7일 전기로와 200

일전두의 나날 전기로는 이곳

로 통제금이 온갖을 풀으며 삼강

으로 부들부들 열거하고 생사교파를 할

때 해온 충정과 애국의 통행기

의 알기름에 운동이나 매력이 및

나에게 희석도 없었다. 오히려 암

라까며 속을 대워온 청기로이다.

**각오 - 대결전의**

문령체현소로 통제금이 폭스와

결별하고 결심한 것은 10여년 전이었다.

당시 저들의 악랄한 봉쇄적 행동

으로 생산성상황에서 애를 먹고 있던 세련소에서는 폭스를 전혀

쓰지 않는 현대적인 전기로에

하나나는 말 한마디로 더 표현하

고자 어려웠다. 그걸로 안타깝고

위험한 순간만이 있은 것은 아니었다. 미지의 기술장막을 한걸

걸어 벗겨내고 성공으로 한걸음

더进一步로는 보통의 각오로는

실천 할수 없음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로를 다루는 기술자들과 접해

조종기능도 높아졌다. 충전에는

제작과 제작과 같은 기술자들은



